

『擊蒙要訣』에 나타난 祭禮에 대한 考察

The study on Ancestral Rites Through the 『Kyung-moon-yokyul』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길표
강사 김인옥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Kil Pyo, Lee

Lecturer : In Ok, Kim

〈목 차〉

- | | |
|--------------------|-------------------|
| I. 序論 | IV. 祭禮에 대한 分析的 考察 |
| II. 『擊蒙要訣』의 內容과 特徵 | V. 結論 |
| III. 研究方法 및 制限點 | 參考文獻 |

〈Abstract〉

As the ancestral rites is one of ritual ceremony in our country, it's tradition have performed to-da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both filial piety as a thought of worshipping ancestors and the traditional ancestral ceremony through examination of 「kyung-mong-yokyul」,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the practice of the filial piety and contribute to the morals of life and the culture of home life in modern society.

Also, through it's literature, it is to research the forms of ancestral ceremony (time, place, memorial dress, foods, etc.) in the traditional society and the responsibility of acting ancestral rites at home life. According to 「kyung-mong-yokyul」 on ancestral rites it stressed on the true heart rather than unrational, materialistic courtesy. And the ancestral rites in the family system of traditional society was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among practices at home, especially the host(the eldest son and the eldest daughter in family) who hold this ceremony played a important roles.

I. 序 論

오늘날 가정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그 본래의 기능은 쇠퇴 내지 소멸되어가고 가족간 결속력도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자연 발생적 현상으로 현대사회의 가정문제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 이와같은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가정문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몇대가 한 집 혹은 한 마을에 살며, 자신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쓰면서 집안 대소사 일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한 가정과 가족의 일원으로서 맡겨진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은 개인과 전체 가족구성원과 강한 연대감을 갖게하는 근원이 된다 하겠다. 특히 祭禮는 본래 자신의 뿌리가 되는 근본에 보답하고 돌아가신 선조의 뜻을 이어받는 繼世思想과 祖上崇拜 思想이 기본이 된다. 그리하여 현재 자신의 가족과 가정 뿐 아니라 위로는 조상을 받들며 아래로는 자손들에게 선조의 업적과 교훈을 전수시켜 개인은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위치와 구실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예의와 범절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러한 가족 공동체 의식은 가정의 해체와 위기를 감소시키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가정에서의 화목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원천이 되리라 여겨진다. 한 가정은 부부 一代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조와 자손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家道, 家風이 되어 자녀들에 대한 가정교육은 저절로 되었고, 조상숭배 사상은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더불어 타인을 존중할 줄 알게 함으로써 인명 경시의 현대사회에서 제례를 중심으로 한 가정문화에 관한 연구는 더욱 뜻깊다 하겠다.

報本反始의 근본이념인 제례는 이러한 측면에서 재평가 될 수 있다. 현대 다수의 종교를 갖고 신의 섭리를 따르려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있어 조상에 대한 제례가 달리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현대사회에서 제례의 기능성 문제를 논의하는데 난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개성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祭禮라는 儀式을 통해 자신의 근본을

자각하고 정체성을 찾는 데 본 연구는 의의를 둔다. 가정학 분야에서 대부분 연구들은(이길표, 1982·1989; 박수정, 1989; 이정우·김명나, 1990) 祭禮에 대한 意識 혹은 價値觀에 초점을 추어 연구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제례가 더이상 형식적인 전통의례로 규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바이기도 하다. 즉 현대인들의 제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바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栗谷의 思想과 哲學은 관련 학문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고 교육과 관련해서도 여러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祭禮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栗谷 李珣의 『擊蒙要訣』에 나타난 제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第六章 喪制와 第七章 祭禮, 부록 祭儀抄를 중심으로 하여 文獻考察과 內容分析을 하고자 한다. 먼저 祭禮에 대한 規範을 알아보고 일반적 行禮 즉 時期, 場所, 祭服, 祭需, 節次 등에 관해 논의한다. 그리고 전통사회 가정에서 祭禮 遂行에 관한 가족원의 구실과 상징적 의미도 분석하고자 한다.

II. 『擊蒙要訣』의 內容과 特徵

擊蒙이란 몽매한 학동들에게 지혜를 깨우쳐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擊蒙要訣』은 家禮書라기 보다는 학문을 하는 모든 이들이 행해야 할 길을 밝히는 교훈서로서 그 序文에도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 마음을 씻고 뜻을 세워 마땅히 날로 공부하도록 하고자 하며, 또 나 역시도 오랫동안 우물쭈물하던 병을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고자 한다>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擊蒙要訣』에서 栗谷이 冠·婚·喪·祭의 儀禮 중 祭禮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룬은 祭禮를 통한 孝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으로 본다. 또한 栗谷이 『擊蒙要訣』本 章에 喪·祭禮를 넣고 부록으로 제의초(祭儀抄)를 실어 제례를 상세히 적고 있는 것은 첫째로 바른 禮를 가르치고 행하기를 권하는 마음에서요 둘째로 올바른 禮의식과 규범을 통해 뿌리있는 禮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이다.

〈표 1〉 『擊蒙要訣』의 內容

本文	부 록(祭儀抄)
一. 立志章	• 出入儀(밖에 나가고 들어올 때 사당에 고하는 예)
二. 革舊習章	• 參禮儀(정월초하루, 동지, 초하루, 보름에 사당에 나가서 뵈는 예)
三. 持身章	• 薦獻儀(숙절에 선조 사당에 시식 올리는 예)
四. 讀書章	• 告事儀(집안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당에 고하는 예)
五. 事親章	• 時祭儀(일년에 4번 모든 선조께 제사지내는 예)
六. 喪制章	• 忌祭儀(선조 돌아가신 날 제사지내는 예)
七. 祭禮章	• 墓祭儀(四名節에 선조 묘에가서 제사지내는 예)
八. 居家章	• 喪服中行祭儀(喪中 제사에 대한 예)
九. 接人章	
十. 處世章	

『擊蒙要訣』은 〈표 1〉과 같이 입지(立志), 혁구습(革舊習), 지신(持身), 독서(讀書), 사친(事親), 상제(喪制), 제례(祭禮), 거가(居家), 접인(接人), 처세(處世) 등 十章으로 되어 있으며 부록 제의초(祭儀抄)에는 출입의(出入儀), 참례의(參禮儀), 천헌의(薦獻儀), 고사의(告事儀), 시제의(時祭儀), 기제의(忌祭儀), 묘제의(墓祭儀), 상복중행제의(喪服中行祭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체 十章 중 六章 상제(喪制)와 七章 제례(祭禮)에서 상제례에 관한 설명을 보면 〈상제는 마땅히 주자가례에 의해서 행하되 만약 의심되거나 모르는 곳이 있으면 먼저 예를 아는 연장자에게 물어 반드시 예를 다하는 것이 옳다〉 하였는데, 이 두章 만으로 상·제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기가 어려워 제례장을 보충하기 위해 첨가된 것이 祭儀抄로 栗谷은 제례장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지금의 풍속은 대개 예를 몰라서 그 제사의식을 행하는 데 집집마다 틀리는 것이 심하니 가히 우스운 일이다. 만일 이것을 하나의 예로 통일하지 않으면 즉 끝내는 문란을 면할 수 없어 질서가 없어지고 오락케 풍속으로 돌아가다. 그래서 제례를 초록하여 부록 뒤에 두고 그림도 넣었다. 반드시 상세히 잘 살핀 뒤에 이대로 행하고 만약에 부형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상세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알려 바른대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기는 제의초를 보면 먼저 사당지도(祠堂之圖)가 나오

고(每位設饌之圖)가 있으며 앞서 밝힌 8가지 祭儀 항목이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적고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가례에 기반을 두어 제례를 설명하고 있으며, 주자가례와 다른 속절(俗節)의 내용은 작은 글씨로 적어 사람들로 하여금 참고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제의초 묘제의(墓祭儀)에 보면 〈가례에서 묘제는 단지 3월중에 날을 가려 1년에 한번 제사지내는데 지금의 풍속에는 사명절(四名節)에 모두 행하고 있는 바 지금 풍속을 따르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栗谷의 『擊蒙要訣』이 지어진 16C 중엽(1577) 제례에 관한 禮書로는 송기수(宋騎壽, 1507-81)의 행사의절(行祀儀節),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제례(祭禮),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봉선잡의(奉先雜儀) 등으로, 당시 저술된 禮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우선 집안마다 달랐던 의식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목적이 있었기에 형식이나 내용에서 거의 주자가례를 따랐다. 그러나 주자가례의 내용이 조선의 풍속과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속세를 따르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다음으로 당시 禮書는 나름대로 그때의 상황을 반영한다. 조선 초기에는 사대부 계층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반해 이 시기는 신분적으로 私族으로 고착화되어가고 향촌사회에서 세력기반을 잡아가는 士林들이 자신들 각각의 가문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통합성을 이루는 것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생활 규범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다. 그러므로 학문적이기 보

다는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였다(고영진, 1995). 격몽요결도 울곡이 해주(海州)에 내려가 향약을 만들어 고을의 폐습을 바로잡고자 향촌교화를 위해 힘쓸 당시 지어졌다.

『擊蒙要訣』은 敎訓書이나 第六 喪制章, 第七 祭禮章과 祭儀抄는 祭禮에 대한 내용 家禮를 기본으로 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16c 중엽에 지어진 栗谷의 『擊蒙要訣』 중 第六·七章인 喪·祭禮부분과 부록 祭儀抄를 중심으로 그 내용에 충실하여 당시 제례의 규범과 행례에 대해 文獻考察 하였다. 또한 가정생활에서 祭禮를 주관하는 宗子와 宗婦의 제례 수행에 관해 분석하였다.

따라서 1577년 德水 李氏인 栗谷이 지은 擊蒙要訣의 내용으로 당시 모든 祭禮를 일반화 하여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家禮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Ⅳ. 祭禮에 대한 分析的 考察

1. 祭禮規範

『擊蒙要訣』祭禮章에 의하면 <상례와 제사 두 가지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자식으로서 가장 정성을 다 하여야 할 일이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는 돌이켜서 봉양한다 하더라도 이룰수 없는 것이니 만약에 장례에 있어 그 예를 다하지 않고 제사에 있어 그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끝까지 애통한 일을 무슨일로 의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자식된 자로서 상제제시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함을 경계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는 父母에 대한 孝가 '誠'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여기며, 栗谷이 內面的 禮의 본질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모든 外的 行禮 형식은 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祭儀抄의 出入儀, 參禮儀, 薦獻儀, 告事儀의 내용을 보면 가까운 곳을 가든 먼곳을 가든 선조의 사당에 예를 드리며 살

아게신 부모 대하듯 하였는데, 특히 특별한 날(俗節이나 초하루, 동지등)이나 관직이 상하등 되었거나 자식을 출산하였을때 告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겼으며, 그 절기에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먼저 올려 시식한 연후에 쓰고 혹은 잘 두었다가 후에 제사때 썼으니, 참된 정성이 단지 부모 상·제례시 애통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곁에 계신듯 공경하고 봉양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이와같은 가정내 孝의식은 그 마을이나 사회, 나아가 국가로 이어져 忠으로 발전된 것임에 두 말 할 나위 없을 것이다. 또한 마을의 어른은 곧 나의 부모요 스승임을 알고 그 예를 다하였으며, 남의 자식이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주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도리로 여겼다. 현대사회에서 참된 민주주의와 자율이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주체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 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며 아끼는 것으로 어른은 어른으로서, 젊은이는 젊은이로서 바르게 행하고 실천할때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곧 전통사회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가정내 사사로운 家事에서부터 중요한 대소사 의례에 이르기까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의를 실천한 것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祭禮章에는 <무릇 제주(祭主)는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정성을 다할 뿐이니 집이 가난하게 되면 집에 있는 재산이 있고 없는 것을 헤아려 제사 지내고 중한 병이 있으면 제사를 행할수 있는 근력을 짐작해서 제사지낸다. 재력이 있어서 제사를 지낼만 하면 마땅히 그 예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정성을 다해 제사를 모셔야 할뿐아니라 형식적인 禮가 되지 않도록 현재 자신의 형편과 분수에 맞게 집안 사정을 고려하여 행함이 옳다 하였으니 결코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禮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禮를 행한다고 할 때 그 禮의 출발은 誠으로 각 가정에서 先祖에 대한 祭禮時 그 形式에 치우쳐 祭需마련이나 祭禮節次를 번거롭고 어렵게 여긴다면 이는 祭禮의 본질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바이니, 祭禮에 대한 올바른 意識의 전환과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2. 祭禮行禮

에 있어서 그 祭儀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르다(〈표 2〉 참조). 정월초하루, 동지, 초하루, 보름에 參禮儀를 지내고, 薦獻儀는 俗節에 지내니 속절이란 정월 보름, 삼월삼일, 오월오일, 유월보름, 칠월칠일, 팔월

『擊蒙要訣』祭儀抄에 나타난 8가지 祭儀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祭禮行禮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시기

〈표 2〉 제의초에 나타난 行禮

제 의 행례	出入儀	參禮儀	薦獻儀	告事儀	時祭儀	忌祭儀	墓祭儀	喪服中行祭儀
時期	밖에 나가고 들어올 때	정월초하루, 동지, 초하루, 보름	속절	일이 있을 시 고향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선조 돌아가신 날	四名節	· 상중의 제사는 五服에 따라 제사를 행하고 폐하는 시기가 다름
場所	祠堂	祠堂	祠堂	祠堂	祠堂·正寢	正寢	산소	· 服中の 제사는 검은갓, 흰옷, 검은띠를 쓴다
祭服		團領이나 혹은 붉은 直領을 입는 것도 좋다			<주인> 관직有: 紗帽와 團領 관직無: 團領과 條帶 <부인> 위아래 깨끗한 옷	· 부모제사 시 관직 有 無에 따라 다름 · 할아버지, 방계제사는 제복이 다름	제사주관자 모두: 검은갓, 흰옷, 검은띠	
祭需		· 脯 果類 편 · 정월초하루, 동지 때에는 다른 음식을 준비	약반 쑥떡 수단등 時食		果, 脯, 熟菜, 食醢, 沈菜, 清醬, 醋菜, 魚, 肉, 餅, 麵, 羹, 飯, 湯, 炙	· 시제 때와 같고 단, 과일과 탕은 3가지 넘지 않는다	· 墓의 수에 따라 기제 때와 같이 준비 · 토지신에게 제사	
節次		降神 參神		降神 參神 讀祝	參神(降神) 進饌 初獻 讀祝 亞獻 終獻 侑食 闔門 啓門 進茶 辭神 納主 徹饌 餽 受胙	參神 降神 進饌 初獻 讀祝 亞獻 終獻 侑食 闔門 啓門 進茶 辭神 納主 徹饌	進饌 降神 參神 初獻 讀祝 亞獻 終獻 辭神 徹饌 · 토지신 제사는 祝의 내용만 다르다	

보름, 구월구일, 선달그믐에 시식을 올린다. 또한 時祭에는 춘분, 하지, 추분, 동지에 지내되 만약 연고가 있어 날짜를 미리 정할수 없으면 仲月(2,5,8,11月) 중 丁日이나 亥日로 가려 정한다. 墓祭는 四名節에 지내니 정월 초하루, 한식, 단오, 추석이다. 그 밖에 출입할때나 일이 있을때 사당에 고하였고, 선조 돌아가신 날에는 忌祭를 행하였으니 절기나 명절에 지내는 제례까지 하여 年中 제사를 지내는 횟수는 가히 짐작 할만하다.

한편 喪中の 祭祀는 오복친(五服親)¹⁾에 따라 행하고 폐하는 시기가 다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모 돌아가신후 3년상을 지낼때까지는 제사를 폐한다. 대공(9개월 喪)은 장사지낸후 제사를 지낼수 있으며 시마(3개월 喪)나 소공(6개월 喪)은 성복(盛服)전에 제사를 폐한다.

場所에 있어서는 주로 사당(祠堂)에 제사를 행하는데, 時祭에는 사당에서 지내기도 하고 정침(正寢)에서 지내기도 하여 장소에 있어 융통성을 두고 있다. 正寢이란 전통사회에서의 주제사공간으로 時祭나 忌祭時 祠堂에 미리 告한 후 신주를 정침으로 모셔온다. 墓祭에는 직접 산소에 가서 지내는데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한 후 墓의 수에 따라 제사지낸다.

祭服에 있어 忌祭에는 관직의 유무나 친척의 범위에 따라 服色과 형태가 다르다. 예를들어 부모 제사시 관직이 있는 경우에는 호색모(鎬色帽; 흰모자)나 참포모(斬布帽; 거므스름한 모자)에 옥색단령(玉色團領), 백포각대(白布角帶; 흰각대)를 하고 관직이 없는 경우에는 호색립(鎬色笠; 흰 패랭이)나 참색립(豨色笠; 거므스름한 패랭이)에 옥색단령(玉色團領), 백대(白帶; 흰띠), 백화(白靴; 흰신)를 신는다. 부인의 경우에는 호색파(鎬色帔; 흰색배자)에 백의·백상(白衣·白裳; 흰 치마저고리)을 입는다. 그 외 祖(할아버지)이상 제사나 방친(傍親)제사도 관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차이를 두었고 부인의 服은 祖이상 제사시 현파(玄帔)에 백의(白衣; 흰옷), 옥색상(玉色裳; 옥색치마)를 입고 방친(傍親)제사시에는 화려

한 옷을 입지 않는다.

節次는 時祭나 墓祭, 忌祭가 다른 祭禮에 비해 그 형식이 구체적이다. 時祭를 중심으로 본다면 사당에 있던 神主²⁾를 正寢으로 모셔와 제사를 지낼경우 모든 참가자들이 참신부터 시작되나 만일 時祭를 사당에서 지낼때에는 먼저 神이 강림하기 위한 잔을 올리는 강신(降神)을 한 후 참가자 전원이 일동 재배(再拜)하며 인사하는 참신(參神)을 한다. 다음으로 음식을 올리는 진찬(進饌)은 본래 제사지내기 전 당일 날 새벽에 果類와 脯, 熟菜, 간장, 시접, 초첩을 먼저 신위 모신 자리에 놓고 제사가 시작된 후에는 어(魚), 육(肉), 병(餅), 면(麵), 반(飯), 갱(羹), 탕(湯)을 놓는데 이때 주인은 어(魚), 육(肉), 갱(羹)을 받들어 놓고 주부는 병(餅), 면(麵), 반(飯)을 놓으며 자체들은 탕(湯)을 각 신주앞에 놓는다. 한편 적(炙)은 형제 중 나이가 많은 한사람이 받들어서 축(祝)을 하기전에 올렸다가 축이 끝나면 이를 徹한다. 진찬(進饌)에 이어 삼헌례(三獻禮)를 하는데 초헌(初獻)은 제사주관자인 주인이 하고 아헌(亞獻)은 주부가 하며 종헌(終獻)은 그 외 子弟가 한다. 初獻후에 祝을 하는데 부모의 축은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세월이 흘러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함에 시절이 흐르고 바뀌었으니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옵니다)라 하고 祝이 끝나면 술과 肝炙을 내려 놓는다. 아헌을 할때에도 肝炙을 놓고 아헌 후에 술, 肝炙을 내려놓는다. 終獻에는 肉炙을 올리고 예가 끝난후 내려 놓는다. 三獻이 끝나면 숟가락을 반(飯)에 꽂고 젓가락을 바르게 놓는 유식(侑食)후 조상이 이를 잡숫는 함문(闔門)과 계문(啓門)의 절차를 행하고, 국을 물리고 승냥을 올리는 진다(進茶)를 한다. 栗谷은 祭需에 果 다섯 가지와 湯 다섯 가지는 가난해서 다 마련하기 어려우면 세 가지라도 좋다 하였다. 이와같은 모든 절차가 끝나면 주인이하 모든 사람들이 재배하면서 끝나는 사신(辭神)을 한다. 이에 주인과 주부는 각기 신주를 받들어 主櫃³⁾에 넣어 사당에 놓는다. 그리고 음식을 치우는 철

1) 참취(斬妻), 재취(齋妻), 대공(大功), 소공(少功), 시마(總麻)의 다섯 가지 상복에 해당하는 친척의 범위

2) 조상의 위패

(徹)을 하고 제기(祭器)를 깨끗이 닦아 제사에 쓴 제물(祭物)을 나눈다(餽). 또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술과 찬을 나누어 먹고 끝난다(受胙).

한편, 忌祭의 절차는 時祭때와 같이 하되 祝을 한 후 주인 이하 슬픈 마음을 다해 哭을 한다. 그리고 모든 제사 절차가 끝난 후 음식을 徹하는 것은 時祭와 같고 단 餽과 受胙의 절차는 없다. 墓祭에는 음식을 먼저 올린(進饌)후 제사를 시작하고 忌祭때와 같이 한다. 그리고 祝을 하여 終獻까지 三獻을 한 후 辭神을 하고 음식을 徹하며 마친다.

이상으로 『擊蒙要訣』 祭儀抄에 나타난 行禮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時祭와 忌祭, 墓祭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다른 제례보다 중요시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時祭가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어 忌祭, 墓祭는 그에 準하여 차이를 두어 행해졌다. 현대사회의 각 가정에서 주로 많이 행하고 있는 제례는 忌祭로(이길표, 1982, 박수정, 1989), 이를 중심으로 祭禮 行禮의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忌祭는 그 시기에 있어 축문에 諱日復臨(돌아가신 날이 돌아오니)이라 하여 돌아가신 당일날이 바로 忌日이 되는 것이며, 제사전 당일날 이른 새벽에 음식을 차리면서 제반 절차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에서 기제사는 주로 사망 전 날일몰 후에 지내는 경우(이길표, 1982)가 가장 많은데 『擊蒙要訣』에는 忌日 이른새벽에 제사를 지낸다 하였으니 이는 본래 첫새벽이 시작되는 子時경에 지내는 것으로 개개인이 직업을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 여건상 시간을 앞으로하여 미리 저녁시간에 제사를 지내고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을 저녁시간으로 옮겨 지내야 한다면 돌아가신 당일날 저녁시간에 지낸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통사회에서는 祠堂은 한 집안의 중심체로 사당앞에서 대부분 모든 祭禮를 행하였으나 忌日이 되면 正寢이라는 祭祀空間에서 忌祭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각 가정에서 祠堂뿐 아니라

正寢이라는 祭祀空間을 따로 두어 제사를 행한다는 것은 현대의 도시 주택구조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이는 오늘날 가정내 祭禮에 대한 위상이 전통사회와 다름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셋째, 『擊蒙要訣』에 의하면 친척의 범위에 따라 혹은 관직의 유무에 따라 祭服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祭服을 준비하기 보다는 깨끗한 평상복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어(이길표, 1982) 전통사회에서와 같은 祭服을 갖추는 가정은 매우 적으며 또한 가정행사 참석시 한복을 착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입는 것이 좋다 하여(정영숙 외 3인, 1994) 우리 고유 의상인 한복도 특별한 날에 입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양복에 익숙해 있는 현대인에게 한복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 祭服을 마련하여 입는다는 것이 번거롭게 여겨질 수 있으므로 단지 忌日에 화려하지 않고 검소한 복장으로 깨끗하게 손질한 옷을 입음으로서 예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현대사회에서 祭需준비에 대한 주부들의 태도를 조사한 연구(한재숙 외 2인, 1989)에 의하면 도시 주부들의 약 85%가 祭需를 깨끗하게 새로 마련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제사음식은 평상시 보다 크고 좋은 것으로 하고 있어(박수정, 1989), 다른 무엇보다 祭禮에 대한 外的 表現을 祭需마련에 두고 있으며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자손으로서 孝를 실천하는 것으로 여겨, 이와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擊蒙要訣』에서 粟谷이 '제수(祭需)는 정결하게 정성껏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시제에 준해서 준비하되 그 가짓수에 있어 간소하게 하라' 하였으니, 祭需는 정성껏 정결하고 간소하게 마련하여 결코 분에 넘치지 않도록 함이 옳다 하겠다..

다섯째, 節次는 參神, 降神후 잔을 세번 올리는 三獻禮가 기본이 되며, 祝을 한 후 哭을 한다 하였다. 또한 祖上이 진지를 잠수는 시간을 드리고 난 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時祭에서의 餽이나 受胙의 절차는 忌祭에 없는데, 餽은 제사에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고 受胙는 제사지낸 고기를 제주가

3) 신주를 모셔두는 궤

먹는 것으로 이는 오늘날 “음복”에 해당된다 볼수있다.

3. 家庭內 祭禮 遂行義務

남성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가정내 남편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독권과 대표권을 갖으며 집안 대소사 행사를 수행하였으며, 주부도 또한 가사 수행의 무와 주부권을 갖고 집안일을 통솔하였다. 이와같은 가정의 핵심인 부부는 남편은 남편으로서 위치와 의무가 있었고 아내도 아내로서의 위치와 그에 따른 구실이 있었던 것이다. 祭禮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면을 여러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擊蒙要訣』祭禮章 첫머리에 <제사는 마땅히 家禮에 따르고 반드시 祠堂을 세우고 먼저 신주를 받들고 그리고 祭田을 설치하고 祭器를 갖추며 종손이 이를 주관한다>하며 한 집안의 宗子로서 祭禮 遂行義務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墓祭, 忌祭는 세상풍속에 자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행하는데 이는 禮가 아니다. 墓祭는 각 집에서 돌아가면서 행한다 하더라도 산소 앞에서 지내야 가하다. 하지만 기제때 들려가며 지낸다면 사당앞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지방을 써서 지내니 심히 좋지 않다. 비록 서로 번갈아 지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거든 여러 가지 祭物을 차려놓고 家廟에서 지내는 것이 옳을 것이다>. 祠堂 즉 家廟는 모든 宗家に 마땅히 설치하는 것으로 宗家の 宗孫에게 祭祀權을 부여했던 것이다.

제례를 행하는데 家長에게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것은 그 만큼 전통사회 가족제도 안에서 祭祀가 중요한 의례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長子에게 보다 많은 재산을 주는 長子優待 不均等 相續制 를 시행함으로써 대를 이어 제사권을 계승하도록 하여 조상의 제사를 끊이지 않게 하였다.

전통사회에서 長子優待 不均等 相續은 직계가족이라는 가족유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다. 즉 장남을 우대하여 집을 물려주고 차남이하는 분가하게 하여 가족이 1세대 1부부의 원칙, 즉 직계가족의 원리를 가질수 있는 것이 바로 長子優待 不均等 相續으로 장남을 우대하는 이유는 장남이 부모와 동거하면

서 부모를 봉양하고 祭祀를 받들고 집을 찾는 손님을 대접하기 때문이다. 즉 장남의 몫은 부모 봉양, 봉제사, 접빈객을 위한 것이다(이길표·주영애, 1995).

한편 『擊蒙要訣』祭禮章에 祭主는 <자신의 근력과 재력에 따라 祭祀를 지낼만 하면 지내야 한다>는 제사 주관자로서의 의무를 당부하고 있어 長子の 특권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감도 컸던 것이다.

또한 전통사회 가족제도 안에서 주부로서의 구실도 큰 것이다. 특히 宗婦는 모든 대소사 일을 통솔하며 가계운영에 직접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주부권의 상징인 열쇠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모든 살림을 맡기면서 권리를 넘겨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祭儀抄 時祭儀에 의하면 <제사전 주부는 며느리와 딸들을 데리고 안에서 목욕재계를 하고 제사를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를 한다. 또한 주부는 며느리와 딸들을 거느리고 祭器를 깨끗이 하고 제물(祭物)을 마련하는데 아랫사람에게 명하기를 먼저 먹거나 고양이, 개, 벌레가 더럽히지 못하도록 한다> 하였다. 이는 제사를 행하는데 있어 주부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가정내 의례에서 주부나 종부는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주도적으로 제사준비에 입했던 것이다.

실제로 粟谷의 가정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고, 또 큰 형님마저 돌아가시니, 집안의 어른을 큰 형수로 삼아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따라서 모든 가족들에게 큰 형수님 모시기를 어머니 모시듯 해야 한다고 했으며, 모든 가사를 주관하게 한 것은 집안의 위계질서를 확실하게 하여 어른에 대한 공경을 가르친 것이다(홍달아기, 1993).

전통사회에서 중요시되었던 時祭나 忌祭, 墓祭의 수는 그 덕이 4대 奉祀를 할 경우 기제사가 최소년 8회나 되고 시제나 묘제까지 한다면, 그 규모가 매우 커 가정의례 중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제례시 주부는 祠堂에 있던 主饋를 받들어 正寢으로 옮길때 주인의 뒤를 따르며, 주인이 모든 남자분 신주를 받들어 놓으면 주부는 손을 씻고 올라가서 여러 여자분 신위를 받들어 놓는다. 또한 進饌을 하는 과정에서 주부가 함께 찬을 올리고,

두번째 잔을 올리는 亞獻은 주부가 하였다. 부계계승의 조상숭배 사상이 기본이 되는 제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부들은 이와같은 참여를 통해 주부로서 혹은 종부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했던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아직까지 전통사회 대가집 종부로서 주부권을 갖는 경북 안동군 도산면 토계리에 있는 진보(眞寶) 이씨 종손택 주부의 예를 들어보면 이러하다.

〈몇몇의 머슴과 일하는 아이를 두고 넓은 집안을 돌아보면서 굵은 목소리로 호령하며 가사를 돌본다. 이 집의 주부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 시부모(侍父母)이다. 1년에 20회가 넘는 기제사나 차례시에는 평균 50여명의 친척이 모인다. 제사의 제찬(祭饌)을 정성껏 장만하여 제사를 거행하도록 뒷바라지하고 일가 친척을 대접한다. 평시(平時)에도 원근에서 이 종가를 찾는 객이 그칠사이 없다. 근년에는 드물다 하겠지만 옛날에는 평일 식객(食客)이 5-6명 정도로 그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시부모(侍父母)는 언제나 평안하고 흡족하게 거처와 음식을 마련하여 올리며 항상 복장이 깨끗하게 하여 가족의 체통을 지키게 한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과 접하며 신경을 많이 써야하고 일이 많아 항상 분주하면서도 주부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한다면 큰집의 큰 살림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 집의 주부는 능란한 사교술과 넓은 아량과 부드러운 성품을 갖추면서 굳세게 가사를 이끌어가는 힘과 사람을 거느리는 통솔력이 있어 보였다.〉(이광규, 1985)

이와같은 내용을 통해서 전통사회 주부들이 가정생활에서 많은 과업을 수행하며 그 나름대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역량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 즉 士大夫家 양반택의 종부나 며느리들에게 가정의 儀禮 준비는 아랫사람에게 시킬수 없는 자신의 중요한 할 일은 바 임무가 되어왔다.

경북 안동지방 忠孝堂의 宗婦는 〈제사지내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 5대 奉祀에다 설과 음력 9월 9일 제사(추석인 음력 8월 15일에는 그곳에서는 햇곡식이 나지 않으므로 9월 9일에 지낸다고 함)까지 합하여 일년내내 제사준비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현

재는 제사를 그대로 대를 이어 해 줄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 그러나 제사는 꼭 그대로 지켜야 할 선조들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여 가정의례와 관련된 가사활동이 중요한 일이었으며 여성들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임무였음을 짐작케한다(주영애, 199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 집안의 대소사 중 제사를 지내는 일은 종가의 장자나 주부에게 더없이 중대한 행사로 이와같은 일을 수행하면서 장자는 그 집안 대들보와 같은 위치에서 가정내 모든 일을 통솔하고 지휘하였으며 종부는 제사준비 뿐 아니라 제사에 참석하는 손님대접까지 힘겨운 가사활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의무이자 소임으로 생각하여 이에 임했던 것이다. 더불어 그 만큼의 宗婦로서의 지위 또한 宗子 못지않게 크다 할수 있다.

또한 『擊蒙要訣』 내용에 제사는 자손이 서로 번갈아 가며 지낼 수 없고, 사당이 있는 종가에서만 행할수 있는 것이라 하였으니, 현대사회에서 장자나 맏며느리, 종부로서 소임은 크나 제사를 다른 형제들과 돌려가며 지내는 것은 禮에 어긋난 것이고 다만 이러한 어려움은 여러 형제들이 제수 준비시 가사 협력이나 제수를 마련해 음으로써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V. 結 論

위로는 선조를 섬기며 아래로는 자손들에게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 즉 뿌리를 깨닫게 해 주는 報本反始의 제례는 현대 가정의 생활철학적 측면에서 질서의식 不在와 물질만능의 현대인에게 새로운 의미를 준다. 본 연구는 이에 의의를 두며, 栗谷의 『擊蒙要訣』에 나타난 제례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祭禮는 자신의 선조, 부모에 孝의 발로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정성이 그 기본이 된다. 따라서 그 행례의 형식 절차는 제사를 모시는 주관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외적 표현일 뿐이다. 栗谷은 『擊蒙要訣』에서 ‘精誠’의 가르침과 함께 祭禮行禮를 규범화 하였으며 자신이 몸소 실천하며 모범을 보였

다. 즉 祭儀抄에 내용과 같이 8가지 祭儀를 행함으로써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자식된 자의 도리를 다하였다.

그러므로 현대 가정에서 전반적인 제례 행례를 할 때 지나친 경비를 들인 물질적인 虛飾 보다는 자신의 형편과 분에 맞도록 규모있고 절제된 준비가 중요하며, 精誠을 다해 행함이 바른 禮를 실천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집안에 祠堂을 두어 선조에게 수시로 告하고 인사할 뿐 아니라 돌아가신 선조에게 지내는 忌祭에 時祭, 墓祭까지 지냈을 때 연중 祭禮의 수는 가히 짐작할만하다. 이는 祭禮가 어떤 다른 의례보다도 일상화 되어있고 또한 모든 가정내 대소사 중 중심이 되는 禮였음을 알 수 있다. 祠堂은 제례의 핵심이며 중심체라 할 수 있는데 현대 도시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사당의 존재는 자칫 우상숭배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선조에 대한 제례가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 있다. 실제로 가족내 종교갈등에 관해 연구(이정덕·전미경, 1995)한 바에 따르면 제사나 명절시의 의례는 핵가족만의 행사가 아니라 직계를 포함한 여러 친족들이 모이는 가족내 중추적인 의례행사로서 이 행사가 원만히 치러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간의 단절을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한 파장이 가족내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제사로 인한 갈등은 개신교와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대두되는 문제로 가족내 종교갈등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된 하겠다.

현대사회로 넘어오기 이전 朝鮮이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유교적 의례형태가 현대사회에서는 하나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자리잡을 즈음 서구의 사상과 종교로 인해 혹은 복잡한 현대 사회구조 변화로 이와같은 고유 의례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제례도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각 종교 형태의 祭禮를 포함한 제례에 대한 연구와 정형화된 제례행례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전통사회 가족제도 안에서 祭禮는 이를 주관하여 행하는 宗子와 宗婦에게는 막중한 의례로 接

賓客·侍父母와 함께 많은 일을 수행해야 할 의무와 구실이 있었다. 특히 주부는 제사준비시 며느리, 딸들을 거느리고 제수마련에 정성을 기울였으며 제사전 進饌時에 餅, 麵, 飯을 올리고 祭禮時 亞獻의 禮를 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주관자인 주인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이들에게는 재산상속에서 장남을 우대하는 특권이 주어져, 집안내 일을 통솔하며 지휘하는 위치에서 영향력있는 존재로 대우받는다. 즉 祭禮 遂行이 이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특권이기도 했다.

전통사회에서 제례는 중요한 의례이지만 年 數回나 되는 祭禮를 행함으로써 宗子와 宗婦를 중심으로 하여 한 가정의 생활의례가 되었으며, 그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이와같은 祭禮 遂行義務는 단지 자식된 者의 도리를 다한다는 차원보다 장자를 중심으로 한 한 가정과 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매개체가 된다고 사료된다.

栗谷의 『擊蒙要訣』을 통해 본래 제례의 의미가 孝를 기본으로 하여 부모나 웃사람에 대한 誠敬을 강조하고 있고, 실천적 행례로서 형편껏 준비하여 제례에 임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가치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찾는 데 祭禮는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하리라 여겨진다. 즉 웃사람 특히 부모에 대한 祭禮를 엄숙히 행함으로써 효를 실천하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교육적 본보기가 되며, 조상의 제사를 지냄으로서 혹은 그 분의 墓 앞에서 자신의 근본을 자각하고, 자신 뿐 아니라 이웃, 친지, 사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 해야 할 구실을 생각하며 상하질서와 조화로운 삶의 방향을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웃사람에 대한 공경과 아랫사람에 대한 자애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청소년 문제나 가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조상에 대한 祭禮 遂行을 통해 각 가정이 나름대로 하나의 생활철학 혹은 생활문화로 정착시킴으로써 현대인의 교육

적, 정신적 면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신표 外(1982), 전통적 생활양식 연구(中),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 2) 고영진(1995), 조선중기 예학 사상사, 서울:한길사
- 3) 구범모 外(1992), 한국산업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4) 금장태(1986), 현대사회와 유교의례의 해체, 정신 문화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여름호
- 5) 박수정(1989), 도시주부의 제례행례의식과 제례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윤태림(1994), 한국인의 성격, 서울:동방도서
- 7) 이광규(198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일지사
- 8) 이길표(1982),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_____(1989), 도시주부의 가정경영관과 가정의례와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141-164
- 10) 이길표·주영애(1995),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서울:신광출판사
- 11) 이정덕·전미경(1995), 가족내 종교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99-213
- 12) 이정우·김명나(1990),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05-124
- 13) _____(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대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 8, 23-48
- 14) 장철수(1995), 한국의 관혼상제, 서울:집문당
- 15) 조남국 (1991), 한국사상과 현대사조, 서울:교육과학사
- 16) 정영숙 外(1994), 전통적 가정생활문화에 관한 의식, 충북가정학회지 3(1), 43-51
- 17) 주영애(1992), 조선조 상류주택의 살림공간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한재숙 外(1989), 제례에 대한 도시주부들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영남대 자원문제연구소, 자원문제연구 8, 143-153
- 19) 홍달아기(1993), 율곡의 가정교육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Edward Shills, 김병서·신현순 옮김(1992), 전통 -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서울:민음사
- 21) A van Gennep, 전경수 역(1992) 통과의례, 서울: 을유문화사